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강북신문 6면

일자리 연구회 일자리정책·사업 보고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의 구본승 대표의원과 유인에 의원은 지난 7월19일,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와 첫 간담회를 갖고 강북구 일자리정책 및 사업현황 보고를 받은 후에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연구회'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강북구 지역의 일자리 관련 실태 파악, 타 지방정부의 일자리 발굴·교육·취업연계 등의 우수사례 수집, 일자리 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첫 간담회에서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11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일자리 연구회와 일자리경제과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연구회 논의 결과, 교육복지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는 '퇴직교사 방과 후 교실 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취지에 맞는 부서로 이관할 필요성을 의견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7월1일부터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되어 일자리경제과가 되면서 일자리사업 팀 1개가 없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면서 '일자리연구회'는 강북구청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분석하며 지역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 일자리정책 및 사업 보고 간담회 개최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 도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구본승 대표의원, 유인에 의원)는 지난 7월 19일,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와 첫 간담회를 갖고 강북구 일자리정책 및 사업현황 보고를 받은 후에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연구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강북구 지역의 일자리 관련 실태 파악, 타 지방정부의 일자리 발굴·교육·취업연계 등의 우수사례 수집, 일자리 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첫 간담회에서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11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일자리 연구회와 일자리



▲ 「일자리 연구회 간담회 장면.(구본승 대표의원(중앙)과 유인에 의원(우측))

경제과가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연구회 논의 결과, 교육복지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는 '퇴직교사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취지에 맞는 부서로 이관할 필요성을 의견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7월 1일부터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

제과가 통합되어 일자리경제과가 되면서 일자리사업 팀 1개가 없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치면서 일자리 연구회는 강북구청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분석하며 지역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강북구의회 일자리 연구회, 일자리정책·사업 보고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일자리 연구회' (구본승 대표의원, 유인애 의원)는 지난 19일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와 첫 간담회를 갖고 강북구 일자리정책 및 사업현황 보고를 받은 후에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자리연구회는 7월 1일

발굴·교육·취업연계 등의 우수 사례 수집, 일자리 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첫 간담회에서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11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강북구 지역의 일자리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방정부의 일자리

받은 후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일자리 연구회와 일자리경제과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연구회 논의 결과, 교육복지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는 '퇴직교사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취지에 맞는 부서로 이관할 필요성을 의견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돼 일자리경제과가 되면서 일자리사업 팀 1개가 없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일자리 연구회는 강북구청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분석하며 지역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